

LG생명과학, B형 간염치료제 FDA 허가 신청

LG생명과학(대표 양홍준)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B형 간염치료제 LB80380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 임상시험 허가(IND)를 신청했다고 10월1일 발표했다.

LG는 LB80380에 대해 최근 영국에서 임상1상 시험을 끝마쳤다.

LG생명과학은 LB80380이 FDA로부터 세계적인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3국에서 만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LB80380은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험결과 기존 치료제보다 약효가 5배 이상 강력하며 장기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성균을 제거할 수 있고 재발 억제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G생명과학은 2006년께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아 세계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B형 간염치료제 세계시장은 1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10/ 08 >